

범죄문제 전문가 최율교수와 이강령 경감은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함께 들고 있었다. 이때 이경감의 허리에 찬 호흡기가 삐삐 울리기 시작했다.『경찰서에서 찾고 있습니다. 곧 다녀오겠습니다.』 이경감은 이렇게 말하면서 서둘러 자리를 떴다.

이경감은 최율교수가 가르치던 대학에서 범죄학을 공부한 최교수의 제자였다. 학교를 졸업한 뒤 경찰간부가 된 뒤에도 이경감은 줄곧 최교수와의 사제의 정을 끊지 않았다. 새해를 맞아 그날도 이경감은 최교수를 저녁식사에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한참 뒤 이경감은 허겁지겁 테이블로 돌아왔다.

『돌발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자가 강남 푸른공원 옆 한 고층아파트 테라스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겠다고 위협한다는 겁니다. 서에서 순찰차를 보내 현장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도 함께 동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일이 끝나면 장소를 옮겨 이야기를 계속하시지요.』

『그래 좋아! 함께 가봅세.』

밖에는 겨울답지 않게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윽고 순찰차가 도착했다. 최교수와 이경감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다. 순찰차는 사이렌을 울리면서 푸른공원으로 향했다. 이경감은 운전석 옆좌석에 앉은 경관에게 물었다.

『그래 사태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요?』

『당직경관의 말로는 김주식이라는 사람이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한다는 겁니다. 증권회사 간부인 이 사람은 사기혐의로 고발되어 내일 검찰에 출두하게 되어 있었답니다. 김씨의 부인이 112전화신고를 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침실에 가둬넣고 테라스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순찰차가 푸른공원 근처에 이르자 구경꾼들이 웅성대고 있었다. 경비중인 경찰은 이들을 정리하면서 순찰차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최교수 일행은 아파트 입구에서 차를 내려야했다. 아파트 마당에는 여러 대의 순찰차와 소방차 그리고 앰뷸런스들이 들어차 있었다.

차에서 내린 최교수는 차가운 이슬비를 피하기 위해 코트의 것을 세우고 이경감과 함께 아파트 쪽으로 걸어갔다. 거기에는 굉장히 불거리가 전개되고 있었다. 경찰이 동원한 투광조명장치에서

끝에 바짝 다가서 아슬아슬하게 걸터 앉은 모습을 쳐다보았다.

이때 이경감은 재빨리 무선기로 일부 경찰관에게 아파트 건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들에게 16층의 김주식씨 아파트로 올라가서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뒤 확성기로 이 사나이와 이야기하면서 진정시키려고 했다. 사나이는 손을 흔들며 보이면서 이경감의 소리가 들린다는 시늉을 했으나 테라스 끝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경감이 계속 확성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선기에서 보고하는 목소리

## 함께 푸는 미스터리(Ⅱ)

# 푸른공원 아파트의 미스터리

나온 거대한 불빛이 탐조등처럼 아파트 건물을 훑고 있었다. 이 아파트 전면의 공원 곳곳에는 구경꾼들이 손에 땀을 쥐고 불빛을 쫓고 있었다. 문제의 김주식이라는 사람은 20층 건물의 16층에 있는 그의 아파트 테라스에 나와 있다는 것이다.

이경감은 곧 현장 지휘관이 되어 무선기로 작전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최교수는 바로 옆에서 떠나지 않았다. 불빛이 어둠을 뚫고 아득하게 높은 곳 테라스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을 비추자 구경꾼들은 웅성대기 시작했다. 최교수도 밝은 색의 옷을 입은 사나이가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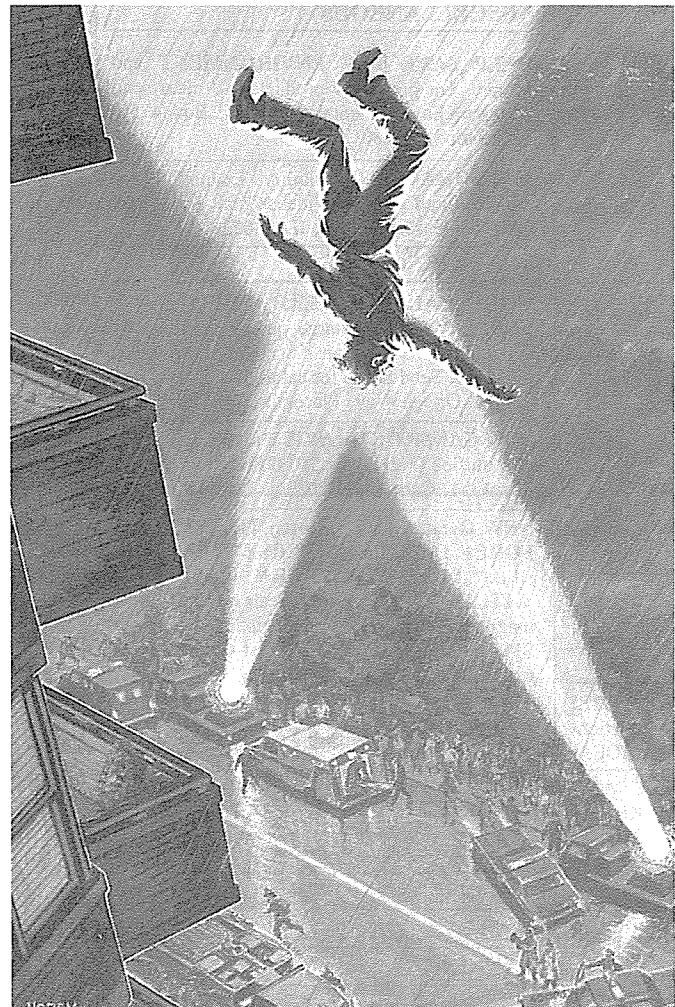
가 들려왔다. 건물안으로 들어간 경관들이 김주식의 아파트 밖에 도착했으나 문이 잠겨있다는 것이다. 이경감은 사나이의 마음을 딴 곳으로 따돌리려고 계속 확성기로 이야기하면서 경관들에게 아파트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알겠습니다. 실시하겠습니다.』 무선기에서 이런 보고가 흘러나온 것과 거의 동시에 사나이의 모습은 테라스에서 사라졌다.

『됐어! 경관들이 문을 따는 것을 알아차린 모양이군. 이젠 잡을 수 있게 됐다.』 고 이경감은 말했다.

그러나 몇초 뒤 조명등에는 끔찍한 광경이 잡혔다. 테라스 난간을 넘어선 몸체가 머리를 박은 채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었다. 구급차 요원들이 달려가서 몸체를 살펴보았다. 두개골이 박살 나 있었다. 이들은 고무시트로 시체를

있었다. 김주식씨 아파트의 현관문은 돌찌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그의 부인 이소라씨는 침실에서 풀려나 맥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테라스로 나가는 문 가까이의 탁자에는 반쯤 비운 위스키병이 놓여 있었다.



덮고 검시관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이경감은 머리를 내저으면서 최교수에게 함께 올라가 보자고 권했다. 이들은 구경 나왔던 아파트 주민들로 빼곡한 엘리베이터를 뒹다. 이들이 16층에서 내렸을 때 홀은 경찰관들로 가득차

이경감이 먼저 아파트로 들어간 형사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최교수는 테라스로 발을 옮겼다. 거기에는 위스키가 아직도 약간 남아 있는 유리컵 외에는 아무 것도 눈에 띠지 않았다.

최교수가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 김주식씨를 살해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낯선 사나이가 이소라씨를 위로하고 있었다. 이경감이 최교수에게 다가와서 이미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따로 보고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이소라씨와 함께 있는 저 사람은 누군가?』고 물었다.

『박춘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파트 바로 위층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경감은 이어 낯은 목소리로 박춘삼씨는 이소라씨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김주식씨는 이 사실을 얼마전까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주민들에게서 얻은 정보라고 말했다. 이경감은 아마도 김주식씨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이번 자살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설사 애정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자살했다면 경찰로서는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에 살인이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최교수가 말하자 이경감은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물었다. 『이소라씨가 침실에 갇혀 있고 침실문을 밖에서 잠근 뒤 열쇠가 꽂혀 있었는데 어떻게 김주식씨가 살해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아파트 현관문을 따고 김주식씨가 뛰어내렸을 때 침실에 갇힌 이소라씨 외에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최교수의 답변은 경찰이 필요한 영장을 얻을 수 있다면 철저한 수색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경감에게서 어떤 수색영장이든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인을 들은 최교수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렇다면 누가 김주식씨를 살해했는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

과연 누가 어떻게 살해했을까?

〈春堂人〉

☞ 미스터리의 해답은 93쪽 참조